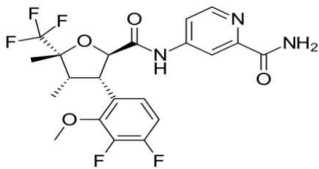


Journavx



- 버텍스 제약(Vertex Pharmaceuticals)
- 성분명: 수제트리진(suzetrigine)
- 1980년대 이후 최초로 FDA 승인된 비마약성 진통제

2025년 1월 30일, 미국 FDA는 내성 또는 중독 걱정 없이 급성 통증을 완화하는, 처음이자 새로운 계열의 비(非)아편계 진통제 Journavx(suzetrigine, VX-548)를 승인했다.



- 작용: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트라마돌, 몰핀,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펜타닐 등)나 아세트아미노펜, NSAIDs(아스피린, 나프록센, 멜록시캄, 아세클로페낙, 케토프로펜 등)과 현저히 다른 기전으로 작용
→ 뇌가 아닌 말초신경계의 NaV1.8을 억제하여 통증 신호전달 억제
→ 통증과 관련된 신경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 따라서 촉각이나 압력 감각과 같은 다른 감각은 그대로 유지된다.
- 적응: 성인의 수술 후, 외상 등 급성 중증 통증 완화
- 장점: 중독, 진정 또는 과다 복용의 위험 없이 오피오이드 수준의 통증 억제를 제공
- 단점: 긴 지연 시간. 즉, 효과 발현까지 2-4시간이 걸릴 수 있어, 수술 전 투여가 권장될 수 있다. 아직 만성통증에 대한 자료는 없다.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

- 2024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을 위한 단기요법'으로 허가받은 38호 신약이다.
- GlyT2(글라이신 수송체 2형) 및 5-HT2A(세로토닌 수용체 2A형)를 타겟으로 하는 이중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비보존제약

예즈투고(Yeztugo)



-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
- 성분명: 레나카파비르(lenacapavir)

2025년 6월 18일, 미국 FDA에서 승인된 반기 지속형 HIV 노출 전 예방(Pre-Exposure Prophylaxis, PrEP) 주사제

- 작용: HIV-1 캡시드 단백질을 직접 억제하여 바이러스의 탈피(uncoating), 핵 진입, 조립 과정을 방해.
→ 대부분의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서 특정 단계에만 작용하는 반면, 예즈투고는 캡시드 억제를 통해 바이러스 복제 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여러 단계에서 작용하므로 특정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더라도 예즈투고는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 즉, 다른 약물과의 교차 내성 없이 HIV 감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 적응: 성인 및 체중 35kg 이상 청소년 대상 HIV-1 성적 노출 위험 감소용 PrEP
- 장점
→ 복약 편의성: 하루 1회 또는 월 1회 복용 방식 대비 6개월마다 1회 주사로 예방 효과 유지
→ 높은 예방 효과: 임상에서 경구 PrEP 대비 우수하거나 비슷한 효과 입증
→ 순응도 향상: 약 복용 누락 걱정 없이 예방 지속 가능
- 단점
→ 고가. 주사부위 염증, 통증, 메스꺼움
→ 예방용. (not 치료용)